

‘위장전입’에 발목잡힌 광주 소각장 또 보완수사 ‘뒷말’

광산경찰, 9월 초 송치 당시

12명 전원 ‘공집방’ 혐의 적용

檢 이견…3명 한정해서 재송치

최근 2번째 이관…장기화 우려

검찰이 광주 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위장 전입 의혹을 사실로 본 경찰 수사에 대해 또다시 제동을 걸면서 사업 표류 장기화 우려 등의 뒷말이 나오고 있다.

1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월2일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A씨 등 12명에 대해 두 번째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 등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광주시립제1요양병원 등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허위 이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구 삼거동을 1순위 후보지로 선정했다.

선정 전 후보지 인근 300m 이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가 실시됐는데, 88세대 중 48세대(54.5%)가 사업에 동의함으로 최소 자격 요건 50% 이상을 갖추게 됐다.

문제는 설문 조사 전 ‘수상한’ 전입이 이뤄져 찬성률이 최소 자격 요건보다 높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불거졌다.

광산경찰은 압수수색과 현장 조사 등을 통해 A씨 등 12명이 이전했다는 곳에 실제로 살지 않으면서 주소지를 옮긴 것으로 판단했다.

또 해당 행위가 설문 조사 자체에 영향을 미친 만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같은 수사 결과가 나온 직후 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 입지 선정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

그로부터 약 한 달이 지나기 전인 9월 말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청하며 사건을 다시 광산경찰에 돌려보냈다.

이에 광산경찰은 10월 중순께 사건을 재송치했는데, 이번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3명에 대해서만 적용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달 초 한 차례 더 보완 수사

를 요청, 광산경찰은 현재 해당 사건을 또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광산경찰서 관계자는 “위장 전입이란 사실 자체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며 “단순히 전입만 한 이들에게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취지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보완 요청도 처음과 사유가 비슷하다”며 “관련자들을 재소환 할 상황은 아니어서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검찰은 보완 수사 및 재보완 수사를 요청한 건 맞지만 사유 등에 대해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렇듯 최초 경찰 수사 종료 후 2개월이 지나

도록 이렇다할 진척이 보이지 않자 2023년 12월 쓰레기 소각장 건립 완료라는 광주시의 목표 달성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위장 전입이 맞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후보지 재산정 절차를 밟아야 하고, 무혐의가 나오더라도 공백을 메꾸려면 후속 절차를 빠르게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재판대조차 가지 못한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위장 전입 의혹을 제기했던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공무집행방해는 차치하고서라도 주민등록법 위반이 명백하다면, 이전 절차를 무효화하고 대안을 세우는 게 광주시의 역할”이라며 “수사 기관의 판단이나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요지부동하고 있어선 안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영 기자



‘북구 복지한마당’ ‘제3회 북구 복지한마당-주민이 복지 피움’ 행사가 11일 오전 광주 북구 양산호수공원에서 열려 시민들이 자케키링 만들기 체험을 하고 있다. /김애리 기자

불륜 30대女 ‘성폭력 무고’ 2심서 ‘징역형 집유’

1심 징역 1년 실행서 감형

직장 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오다 남편에게 발각될 위기에 처하자 불륜 상대를 성폭력 범으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은 A(30대·여)씨의 최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 동료 B씨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의 발단이 된 지난해 1월19일 A씨와 B씨는 직장 상사 등과 회식을 한 후 헤어졌다. 그러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제안하며 그의 집으로 갔다.

남편의 전화를 받고 귀가하기 전까지 A씨는 B씨와 신체적 접촉을 했는데, 남아있는 흔적에 달마가 잡혔다.

이를 추궁받자 A씨는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고소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은 B씨의 자택에 설치된 홈캠 덕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는 무고의 증거도 됐다.

그럼에도 A씨가 혐의를 부인하자 1심 재판부는 개선의 정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열린 항소심의 재판부는 “당심에서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합의한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은 다소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안재영 기자

‘불법 주정차’ 탓…스쿨존서 어린이 친 택시기사 ‘선처’

광주지법, 벌금 500만원 선고

처단형 최저…시아 제약 인정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운전을 하다 10대 아동을 치어 다치게 한 택시 기사가 최저형의 선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승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차상) 혐의로 기소된 택시 기사 A(60)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24일 오후 2시55분께 광주 북구

한 스쿨존에서 택시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법률상 A씨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는 벌금 500만~3천만원으로 산정됐다.

재판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주의해서 운전해야 하는 의무를 위반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A씨가 시야를 확보할 수 없었던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안재영 기자

지적 장애인 노동 착취 신안 염전주 구속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염전주가 구속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목포지청 형사2부(황영섭 부장검사)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염전주 A(6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최근 발부받았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신안군 소재 염전 근로자로 고용한 지적 장애인 B(65)씨의 임금 약 9천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B씨의 피해 사실은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법원은 증거 인멸·도주 우려 등이 있다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관련, 앞서 A씨는 B씨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별도 기소돼 벌금 300만원·집행

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은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확정됐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 청구 등을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목포=정해선 기자

전남경찰, 12주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전남경찰이 연말연시를 맞아 모든 경찰관서가 투입되는 특별 합동 음주운전 단속에 나선다.

11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12주간 전 경찰관서가 합동 음주 단속을 실시한다.

경찰은 특별 합동 단속과 경찰서별 주 2~3회 이상 도심·외곽 불륜, 주야간 불시 스팟식 음주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안재영 기자

민간자격증 관리기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파크골프 모든 것!

실내연습장 완비

지도자 자격증 취득

- 모집기간 : 수시모집(1:1교육)
- 교육접수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 ▶ 교재 배송 → 1차 이론 자가학습 → 1차 시험 → 2차 실기 1:1교육(매주 2회 이상) 실내파크골프연습장
- 접수방법
 - 농협 351-1286-9685-63(국제파크골프연합회)
- 교육비 및 응시료
 - 교재비 + 골프장 실습비 + 강사료
 - 2급 합격시까지 28만원
- 접수 : H.P. 010-9163-7897 Tel. 062-369-0070

파크골프교육 (초보,중급,고급)

- 실내실습장(파크골프 스크린장) 1:1 책임지도(매주 2회 이상)
- 광주교육대학교 시민대학 강좌 개설 - 매주 토요일 09:00-11:30
- 매월1회 이상 파크골프 동호인 동행 전국구장투어



파크골프지도자 1·2급과정 교육 희망자 모집

교육과정			
2 급 지도자 과정	28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1 급 지도자 과정	36만원 자격취득 총비용	실기실습장 이용권 33회 합격시까지	1:1지도 사전예약
초급완성반과정	12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15회	1:1지도/3회 사전예약
초급원포인트과정	6만원	실기실습장 이용권 6회	1:1지도/2회 사전예약

※ 파크골프지도자 1·2급 합격시까지 그 외 비용 일체 없음
※ 접수 즉시 이론교재 및 예상문제지 배송 실기실습/실내실습장 합격시까지 무료교육

교육시간 평일(토)오전 09시~ 오후 19시까지(일)/휴무

접수문의 T. 062-369-0070 M. 010-9163-7897

접수비 입금계좌 국민은행 772601-01-794141

안내문의 : 010-9163-7897 / Tel. 062-369-0070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9
(화정새마을금고 4층), 농성역 4번 출구 방향